

# 순창군, 노인복지대상 수상

### 최영일 군수, 2023 대한노인회 기초자치단체장 부문 경로당 환경개선 등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 기여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역 노인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가 시상하는 노인복지대상 기초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복지관을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추진해 노인권익 신장에 앞장서 왔으며 △ 연초 370개 전체 마을 경로당을 돌아보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149개 경로당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207개 노인복지항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차식 된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을 뿐인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따뜻한 복지가 실현되는 순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임실군, 겨울철 독감유행 호흡기 감염병 선제적 대응

### 결핵, 독감 등 예방 접종 시행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준수

임실군이 겨울철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결핵이나 독감 등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조개·굴 등은 익혀 먹기, 결핵·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환기하기 등을 당부했다.

약사실 관계자들은 서둘러 예방접종을 받기를 권고했다. 현재 임실내과의 9개 위탁 접종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새로운 백신이며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된다.

# 임실서, 학대·스토킹 등 대여성범죄 대응 강화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은) 자치경찰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임실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여성·아동 관련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스톱킹·학대 가정폭력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간 정보공유를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건발생 시 적극적 협조를 통하여 관련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 예방캠페인 및 홍보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경천따라 별빛야행' 투어 운영

### 오는 25일부터 2일간, 객사 ~ 경천변 ~ 순창향교 탐방 등

순창군이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주말 이틀간 밤이 빛나는 순창의 감성 문화와 아름다운 별빛 야경을 두루 즐길 수 있는 '경천따라 별빛야행' 투어를 운영한다.



아울러, 군은 민선 8기 들어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순창군의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기반으로 외부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볼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야경투어 후 바로 귀가하기보다는 순창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이튿날 강천산, 체계산, 용굴산 등 순창의 대표 관광지까지 방문하면 만족스러운 여행이 완성될 것”이라며 “이번 야경시터투어가 체류형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관장 한갑수)이 지난 22일 심 민 군수를 비롯한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 이진산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김장 김치 나눔 행사는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직원을 포함한 70여 명이 참여해 직접 재료 손질부터 김장 김치 버무리기, 포장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이웃과 정을 나눴다.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 지역 소식 통

### 남원소방서, 산불 예방 총력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23일 건조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입산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0월까지 산불은 531건이 발생해 4.970ha의 피해를 입혔으며 화재원인은 입산자 실화 150건(28%), 소각산불 121건(23%), 담뱃불 실화 50건(10%)을 차지했다.



### 남원시, 사물 주소판 설치

남원시가 관내 전기차충전소 47개소에 사물 주소판을 설치했다. 사물 주소는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 개념을 사물과 공간에 적용한 주소이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한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말하며, 주요 부여 대상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인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놀이시설, 지진 옥외대피장소, 인명구조함, 전기차충전소 등이다.